

4. 저 새장의 새가 날듯

신편찬송가 331장

1. 저 새장의 새가 날 듯 곧 벗어나 오라 저 맑은 샘 솟는
2. 죄 가운데 살던 너를 주 품 속에 안으사 네 눈물을 손수

물 에 네 갈한 목 축여 라 네 뒤에는 원수 들 이
씻 고 맘 위로 해주시 네 네 원수가 쫓아 오 니

널 다시 잡으려 네 주 예수 품 찾아 와 서 그
너 앞 아 지 체 말 고

품 속에 잘 쉬어 라 그 품 속에 잘 쉬어 라